



광남일보



이승현 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장 취임
"소통·화합 토대로 회원사 경쟁력 강화" 7



나주시, 지역연계 의료·돌봄 통합 지원
운병태 시장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8



해남, 고구마·김 가공산업 활성화 '성과'
지역 산업모델 발굴...기업 매출 60억 증가 10



광주은행 안산, 양궁월드컵 '금메달'
임시현·강채영과 중국 6-2 제압 12

주간 제7840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음력 4월 16일)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야외 유세를 벌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남 여수시 금호피엔비화학 여수2공장을 방문해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후보들 '경제 회복·민생 안정' 한목소리

선력! 6·3 대선 D-21
공식 선거운동 첫날 출정식

이재명 "내란종식...통합" 준비된 대통령 강조
김문수 "경제 대통령"...이준석 "과학기술 승리"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12일, 각 정당 후보들이 전국을 누비며 22일간의 유세 레이스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4·5·15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선에는 모두 7명의 후보가 선거운동에 나선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비롯해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5번,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 7번과 8번은 무소속 황교안·송진호 후보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가진 출정식에서 이번 대선을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 의 일전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국민과 나라를 구하는 선거"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내란

이전의 대한민국이 아닌, 신문명시대 새로운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라며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어 분열할 여유가 없다. 이제부터는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패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며 국가 위기가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지독하게 준비했다"고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광화문에서 첫 유세를 연 까닭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진 이른바 '빛의 혁명'을 이어 받아 '내란종식'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출정식을 마치고 경기 성남 판교, 화성 동탄, 대전 등 'K-이니셔티브' 벨트를 돌며 반도체·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유세를 펼쳤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는 실용주의·우클릭에 초점을 맞춘 '성장과 회복' 행보를 통해 범보수·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가락시장이 (장사가) 안 되면 전국이 다 안 된다"며 "장사 되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격려했다. 김 후보는 상인 대표들과 순댓국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들은 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다"며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의 첫 유세 장소를 가락시장으로 택한 데 이어 이날 저녁 대구 서문시장에서 첫 유세일정을 마무리한

것은 민생회복을 강조한 행보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대전→대구→울산→부산을 훑는 소위 '경부선 유세'에 돌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0시' 일정으로 여수 국가산업단지 금호피엔비화학 여수2공장을 둘러보고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수출과 국가 성장이 이끌었던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제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글로벌 통상과 과학기술 패권경쟁을 승리로 이끌 비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공계 출신이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내 의지를 드러내는 최적의 장소"라며 첫 선거운동 일정으로 여수산단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2면에 계속

이선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9월 광주서 열린다

국내 최대 규모...관련 산업체·문화·기획사 등 다수 참여

국내 최대 규모의 '박물관·미술관 박람회'가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제2회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급변하는 공동체 속 박물관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박물관·미술관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조명할 예정인 이번 박람회는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공·사립 박물관·미술관과 관련 산업체, 문화기획사 등이 다수 참여한다. 행사는 기획전시, 포럼·강연, 체험행사, 실감콘텐츠, 비즈니스, 박물관·미술관 기념품 판매 등 전시·체험·산업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제1회 박람회

서는 고 이병철 삼성 회장 등 수집가들의 소장품을 재구성하는 등 그들의 생전 수집 활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ICOM(국제박물관 협의회)의 주제를 반영한 글로벌 박물관 트렌드를 소개하고, 인공지능(AI)·저출산·고령화·다문화 등 사회 변화와 박물관의 접점을 모색하는 전문가 강연·국제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또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관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5·18 사적지 순회 '소년버스' 운행 시, 16~30일...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 배경지 등

광주시는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지를 순회하는 '소년버스'를 16일부터 30일까지 운행한다. '소년버스'는 이용자가 광주투어버스 앱을 통해 정류장을 선택하면 차량

이 도착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로,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이동하며 오월광주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운행 노선은 전남대학교 정문~효동 초등학교~광주역~광주고등학교~전남여자고등학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 광주직접시자병원~양림오거리~양림미술관 등이다. 소년버스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하며, 요금은 1회 기준 성인 1700원, 청소년 1350원, 어린이 850원이다. 탑승 후 단말기 태그를 통해 결제하며 시내버스·지하철 환승도 가능하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 1일권(3000원)도 판매하며, 모바일 앱에서 구매 후 24시간 동안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5 청소년 노벨캠프 참여 동아리 모집
세상을 바꿀 미래 꿈나무들을 찾습니다!

- 모집기간** 2025. 4. 21. ~ 5. 15. 18:00
- 선발대상** 도내 고교재학생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동아리
- 선발규모** 20개 모임 / 모임당 5명 내외(지도교사 포함)
- 분야**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자유
- 지원금** 모임당 6백만원의 연구활동비

접수방법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jntle.kr)

문의처
· 전라남도 외양인재육성과(061-286-3433)
·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061-285-9483)

전라남도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